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6월 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대내외정세하에서 당과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걸머지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 국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불리한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으로 하여 국가사업의 주요정책과업들의 부분별 집행실태를 개괄분석하시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올해 상반기도

순조로운 발전은 많은 도전과 제약을 받고있으나 당 제8차대회가 비상히 격상시킨 전당과 전민의 사상적열의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에 의해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전망성있게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올해 상반기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시점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반기도 국가사업전반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를 제때에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기구개편문제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게 될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조용원, 김덕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들, 각 도당책임비서들이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도 주요정책 집행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실태를 부분별로 집중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료해검토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포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펴력하시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여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열매진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 력사적인 서한 《직업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를 보내주시었다.

서한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결을 결을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힘찬 진군길에서 영예로운 승리자로 자랑될 줄은 결의적으로 가다듬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과 혁명적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올수 있는 것도, 인민들의 여러 부분의 주요 진구들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주인공들로 자랑될 줄을 수 있었는 것도 위대한 령도자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7월 한여름의 무더위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태태전기기관차련합기공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이라고 하는것보단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고 하여야 정확하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철도부분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나라 로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려 하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무릇 해외동포들을 가리켜 설움과 아픔, 고통이 많은 사람들 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보다 따뜻한 그리움과 애아주는 품이 그리워 눈물 또한 많은것이 해외동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는 태양의 따사로운 품이 있으며 해외동포로서의 권익을 지켜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조국이 있다.

이 세상에 는 해외 교포들이 많지만 우리 공화국의 해외 동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자애로운 어머니로 모시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해외동포들은 없다 고 본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중 조선인총련합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강화발전 을 위해 기울여오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 결성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조국통일위업수행과 부강조국건설의 보람찬 길에 내세워주시고 총련합회일꾼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면 품소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조국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될 때면 축하단, 방문단들을 무어 참가하도록 배려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조국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도록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참관조직도 직접 짜주시고 어머니품을 찾아온 자식에게 그

령도자가 자기 나라 로동계급을 수령의 존함으로 불러 준 례가 없다.

영직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광으로 승엄하게 새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을 받들어모시듯 받들고 위하시는 인민의 령도자께서만 로동계급에게 주실수 있는 최상최대의 믿음이고 최고의 표창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인민의 령도자이기 에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헤아리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 주신다.

지금도 그이께서 회한한 로동자구전을 지어주시고도 5.1절을 맞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로동자연회도 차려주시어 공장의 전체 근로자들아니 온 나라 인민을 감격에 젖게 하던 그대를 사들여오는 잊지 못하고있다.

주제102(2013)년 10월 어느날 김정수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합숙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이 먹는 국맛까지 친히 보아주시었으며 어머니장군님께서 공장합숙을 잘 지어줄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훌륭한 합숙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공장합숙 부지도 물론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훌륭한 로동자합숙이 일떠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희를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



리시면서 새로 건설한 로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까지 취해 주시었다.

이렇듯 근로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려는것이 철세위인의 한없이 넓고도 깊은 사랑이다.

생신환경을 찾으시어서는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심어주시며 생산생활화의 방도와 가르쳐주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것이라 면 못내 기뻐하시며 그 모든 공로를 근로자들에게 통째로 안겨주시고 시대가 자랑하는 자력갱생의 장자, 위훈자들을 내세워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어찌 그뿐이라. 천만근자를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로동자들의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현판에 새길 친필을 안고 일터를 찾아가시고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근로자들을 따사로운 환眸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다. 또 우회하여 채 가지 않은 재해지역에도 남뉘저 찾아가시어 시대적락후성과 자연재해의 후과를 말끔히 가시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어 근로자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 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그이이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크나큰 힘을 낳고 기적을 낳는다. 경애하는 그이를 모신 날을 지나가나 그되며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글라 글 예세는 수많은 공장의 근로자들, 그이의 믿음어린 친구도 든다는 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창조와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을 이룩하고있는 건설자들...

올해의 날과 달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있는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별, 월별생산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여러 건설전투현장들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

라 분초를 다투며 건설물들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 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우리앞에 도래한 위대한 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고추대는 창조와 건설의 주역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직맹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들고 일어나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지금은 나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철들같이 뭉쳐 충진근대소를 앞장서 견인해나가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기에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오늘의 력사적인 진군길에서도 더 큰 성과들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유치원에서 받으신 《진찰》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수많은 날과 날중에는 그이께서 유치원에서 《진찰》을 받으신 류별남 님도 있다.

이 특이한 일화는 한장의 사진과 함께 오늘도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무릎을 굽혀 의사복을 입은 처녀와 마주앉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의사처럼 제법 귀에 청진기를 꽂고 진찰을 하는 귀여운 《꼬마의사》앞으로 팔을 내미시며 너무도 기뻐하시어 환히 웃으신다.

이 화폭은 경상유치원의 종합놀이실 병원놀이칸에서 얻은 사연을 전해주고있다. 주제101(2012)년 7월 경상유치원을 다시 돌아보고싶어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중앙홀이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고 2층복도를 지나 종합놀이실에 들리시었다.

소꿉놀이칸이며 조립놀이칸, 농촌풍경칸을 비롯하여 여러 놀이칸들을 보시며 동시에 맞게 꾸려놓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병원 놀이를 하는 칸에도 들리시었다.

《꼬마의사》와 《꼬마간호원》들이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꼬마의사》에게 팔을 내미시며 어디가 아픈지 나도 한번 진찰해달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새별눈을 반짝이며 《꼬마의사》는 청진기를 경애하는 그이의 팔에 대고 어디가 아파서 왔는가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진찰하는 어린이에게 내가 어디 아파하는가고 물으니 어디

가 아픈가 되물어본다고, 그런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눈치가 많았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동행한 일꾼들과 유치원의 원장, 교양원들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정말 단란한 한가정의 분위기, 기쁨과 웃음이 한껏 넘치는 순간이었다.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친아버지의 정이 그윽하게 차넘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둥으로 키우시려 천만마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사랑이 함축되어있는 불멸의 화폭이었다.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아이들이 바라보는것이 하늘의 별이라면 그별도 따라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철없는 아이들이 울린 편지에 친필과 함께 빨간별도 그려 회담해주시고 온 나라 도처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애육원과 육아원도 건설해주시는 다심하신 아버지의 사랑속에 이 땅에는 부모없는 아이는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잃은 아이는 없다.

하기에 온 나라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그이를 한복소리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이됨에 스스럼없이 안기어든다.

후대사랑을 천眸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한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경상유치원에서(2015년)

태양의 품속에서 성장하며 평양의 하늘을 날아가

무슨 비유인가고 하시며 우리 동포들의 조국방문기간 비용은 전부 무상으로 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이 애국의 참된 삶을 빛내이도록 따뜻한 손잡이 이끌어 주시는 운명의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머니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비통한 슬픔을 안고 조국을 찾은 저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힘을 내어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 주시었다며 비애에 잠겨있는 우리 동포들을 걱정하시며 위로연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재중동포들이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국사도 많지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문제까지 밝혀주시는 집애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기 위하는 친어머니의 정, 해외동포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정녕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어 재중조선인동포운동의 앞길을 밝고 창창하며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용기백배하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조직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충신들의 집단으로 더욱 든든히 꾸리며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애국애족의 한결만을 걸어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밤이다. 하늘에는 못별들이 반짝이고 어둠에 쌓인 대지는 고요하기만 하다. 하지만 삼라만상이 깊은 잠에 든 이 밤도 잠들 줄 모르는 곳이 있다.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하나, 둘》, 《영차-영차-》 하는 사람들의 웨소리, 발걸음소리, 호각소리, 노래소리... 전조동이 대낮처럼 밝힌 건설장에서 울리는 각종 건설기계의 동음소리는 마치 대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킬음음하며 솟아오르는 건물들에서 떨어지는 용접불꽃은 아름다운 꽃보라마냥 훑날란다. 《올 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밤이 이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처음인것 같아》 얼핏 보기에도 지원자가 분명한 청년대학생의 랑만에 찬 목소리였다. 아름다운 밤. 달밝은 밤이 흐린 낮만 못하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것이 어

잠들 줄 모르는 건설장의 밤

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녕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인민이 바라는것이려면 지 하늘의 별도 따라야 한다. 위민헌신의 숭고한 념을 지니신 철세위인만이 펼쳐질수 있는 인민 사랑의 대건설전투인것이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밝은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

그이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민이 되자.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인민의 리상사회를 하루빨리 안아오자. 이것이 어찌 여기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펼쳐나신 건설자들의 심

힘으로 더 좋은 배일을 창조해가는 인민의 모습이 비껴가지게 보고 또 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처럼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이 아니겠는가. 밤은 깊어가고 하늘의 못별들도 즐고있다. 하지만 잠들 줄 모르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불도가니마냥 더욱더 끓어번지고있다. 이런 밤들이 모이고모여 인민을 위한 살림집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게 되고 공화국은 날로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는 머지않아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황홀한 세 거리가 되고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박철남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여러 나라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성원들,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백두산위인총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아라리키지역위원회 위원장 다니안 오그본나가 모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예손님으로 초대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도시 및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 피터 우즈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지난 5년간 지역위원회 자기의 사명에 맞게 조선의 주요계급들에 즈음하여 지역적 및 국제적범위에서 인터넷토론회를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청송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단죄하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

가 앞으로 웹브사이트들을 통하여 조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보다 광범히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역위원회는 진보단체들,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연합을 강화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위원회활동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이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업해나갈데 대하여 밝혔다. 회의에서는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제정되고 지도기관설정이 있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전 비발 정부 수상 마다보 꾸마르 네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 라흐마와피드 수카르노부트리, 튀르키예조국당 위원장 도구 페린체코,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아를 꾸마르 안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를 위한위원회 의장 히모리 후미히로, 필리핀조선연맹 및 친선협회 위원장 라파엘 마리아노가, 공동위원장 겸 집행국장으로서 도시 및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 피터 우즈가 선출되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화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호소문은 2022년에 진보적인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20세기와 21세기 세계정치가에 뚜렷한 자국을 세기신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화와 김정일각하의 탄생 80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주체의 빛으로 자주성실현을 위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담으로 인도하시어 수카르노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 라흐마와피드 수카르노부트리, 튀르키예조국당 위원장 도구 페린체코,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아를 꾸마르 안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를 위한위원회 의장 히모리 후미히로, 필리핀조선연맹 및 친선협회 위원장 라파엘 마리아노가, 공동위원장 겸 집행국장으로서 도시 및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 피터 우즈가 선출되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우를 인류가 우러러보는 희망의 등대 로 건설해나가고계신다. 자주, 사회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세계인민들은 철세위인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인상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위업을 빛내어 나가시는 김정은 각하의 탁월한 령도에 경의를 표하고있다고 하면서 호소문은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인민의 민족적대의 명철한 인 태양정과 광명성철을 준비있게 맞이하여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화와 김정일각하의 탄생 80화를 인류공동의 명철로 성대히 경축하자. 2022년은 온 세계의 자주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철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청송하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종 인사들의 활동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진보단체, 인사들이 국제적판도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2022년을 회세의 위인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생애와 업적을 격찬하는 의미깊은 해로 되게 하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속에서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방안 제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4.19인민봉기에서 탈선하지 못한 자기들의 의사와 념민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고 조국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인민들의 투쟁기세와 통일기운에 편승하여 출현한 혁신정당, 사회단체들도 평화통일의 구조를 들고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에 나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평화통일이라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서에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북남협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의 시종일관한 조국통일립장을 다시금 밝히시고 만일 남조선당국이 아직은 북남협상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협상을 실시할때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었다.

북남협상을 실시할때 대한 방안은 북남사이에 격폐상태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과도적조치로서 협상기구로 조직하여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풀어진 동족간의 뉴대를 다시 잇고 북과 남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북남협상을 위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새로운 변방제안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공화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임명하는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가 조건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조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남조선 《정부》 그리고 두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북과 남을 련다시키는 련방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것이였다. 이 련방기구의 임무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발전을 조절하며 나라의 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대외분야에서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고 북과 남의 협조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전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하는것이였다.

공화국이 과도적대책으로 제시한 북남협상을 실시할때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은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는 인공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성적극면을 열어놓기 위한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서에 조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북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일것을 제의하시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북남대표들이 모여앉아 협의할것을 제의하시었다. 이렇듯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제시된 북남협상을 비롯한 공화국의 제안들은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

있는 대책이었으며 온 민족의 일치한 지향과 공동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었다. 1960년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북남협상제실시를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 《국회》 및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북남협상제안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 자주통일의 기운과 북남협상의 열망을 급격히 높여주었다. 당시 남조선신문 《국제신보》는 사실에서 《해방 15주년을 맞아 한 김일성주석의 통일방안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정치지도자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우리 민족의 생활에 관한 문제, 국도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하고 타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만 모색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들끼리 흥금을 털어놓고 논의해보자는 의욕이 풍겨져야때문에 민족적인 접근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에 접한 남조선의 혁신정당들도 민족자주적인 통일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립각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조속한 실현》, 《자립경제의 확립》 등을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민족자결원칙에 립각하여 민주통일국가의 완성》, 외세와의 《군사조약반대》, 《공산당불법화조건철폐》, 《남북간의 직접협상과 교류》의 실현 등을 주장해나섰다. 사회대중당은 련공통일로의 지향과 북남협상제안의 실시,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의 구원과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북남경제교류, 북남군대의 각각 10만이하의 축소 등 자기의 통일방안에 공화국의 획기적인 제안들을 수용하였다. 남조선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도 공화국의 제안들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의 여러 각계층 인사들도 북남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통일협약》을 구성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이렇듯 과도적인 북남협상제안일방안은 온 겨레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이것을 계기로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는 더욱 고조되게 되었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월 11일 몸소 려운형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려 모양은 어려움도 잊고 그간 남조선에서 겪은 고충과 애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사람들이 저마다 나서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있는데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장군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청을 쾌히 받아들여이러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그리고는 우리 인민은 절대로 일부 사람들이 부르짖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서 안되며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하여도 안된다것을 밝히시고 조선혁명의 성격으로 부러 출발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선사람에게는 미국웃도 맞지 않고 소련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사업에서 절대로 외세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되며 우리는 외세를 믿을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을 믿어야 한다고, 건국사업을 단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하나와 같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산주의자적인 민족주의의자이건, 정경의 차이가 있진않지만 관개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새 민주조선을 건설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인민주적투쟁을 튼튼히 묶어세우려면 민주주의적인 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인 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우리는 외세를 믿을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을 믿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았으며 기성의 리론에서는 찾아볼수 없던 위대한 자기 인민의 힘을 느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난생처음 들어보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애국의 진리, 투쟁의 진리였다. 박성범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입어야 한다



남조선의 《민족자주 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결성대회 (1961년 6월)

소나비가 내리서인지 한여름인데도 신선한 초저녁이다. 《말방-》 초인종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집문이 열리며 사촌기에 활짝 핀 말방이 방긋거리며 맞아준다.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학생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일찍 들어올 때가 다 있구나.》 학기말이라며 요즘은 늦게 집에 돌아오던 애였다. 《오늘은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에서 현지강의를 받았어요. 지금 한창 방문기를 쓰고있어요.》 밤이 깊어 잠든 딸의 방에 들었던 나의 사이에 《우리 민족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라는 제목이 안겨졌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돌아본 감상을 적은 말방의 글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으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대한 현지강의를 받았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TV와 신문에서도 보아왔으나 정작 앞에 서보니 엄숙하고 경이로운 감정에 휩싸인다. 강사는 올해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이 일떠선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하였다. 주체90(2001)년 8월 14일

탑을 찾는 누구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생애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절세위인들의 뜻과 유산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결의와 의지도 굳게 다진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통일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와 심혈이 어려와서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해외동포의 고백처럼 여기에 서면 통일의 곧바른 길이 보이고 절세위인을 모시어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모습이 안겨와서일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도따라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령정에 나도 한몫 바치리라! 말에의 글은 끝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내 마음속에 긴 메아리로 울리었다. 그렇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통일성업실현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애국에 사는 조선사람모두가 찾아와 힘과 용기를 얻는 통일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민족공로로 조국의 통일 실현하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고 새겨진 북과 남, 해외에서 보내어온 수많은 기증물들로 장식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펼쳐보며 나는 려사의 이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였다. 배영일



수필 우리 민족 누구나 찾아오는 곳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침으로 하여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겨레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도 평양의 통일거리 남쪽입구에 독특한 형상으로 이 탑을 건립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만명씩을 넘는 공화국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수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 외국인들이 탑을 찾았다고 한다.

참된 애국의 길을 찾아 방황하던 김규식선생의 가슴속에도 밝은 태양의 빛이 흘러들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남남땅에도 울려왔던것이다. 이미 1947년 10월에 진행된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1월 9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또 다시 소집하시고 조성된 현 단군국을 타개하기 위한 당면한 대책으로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개별적인 사들에게 북남협상을 조속히 실현할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그이께서는 남북련석회의를 4월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는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알리도록 하고 몸소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에게 남북련석회의초청장을 보내시었다. 이 소식은 삼시에 온 남녘 땅을 들끓게 하였다.

김규식선생은 김구선생과 공동명의로 김일성장군님의 북남협상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회답서한을 띄운데 이어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등의 인사들과 《단선단정》에 참여하지 않고 통일독립을 위해 여생을 바칠 맹세를 담은 내용의 《7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결성에도 참가하였다. 이에 바빠나 미국은 남북련석회의참가자는 《공산분자》, 《용공분자》로 몰았다. 이는 위협성명까지 내고 김규식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결심을 말리려했을것을 강박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수립하라는 《김구선생은 초대대통령으로 밀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김규식선생만은 북행을 지지하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규식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특별초청장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강박과 회유에도 불행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 남북련석회의에 꼭 참가하겠다는

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 국토광란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자는 이 마당에서 구태여 과거를 논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거를 가지고 시야 비야 시비를 가리는 것은 큰일을 그르치게 하는 용졸한 태도이다. 과거분론의 원칙에서 지난날의 일을 다 백지화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련관됨을 통하여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전달받은 김규식선생은 북행결심을 더욱 굳혔다. 선생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것을 간파한 외세는 선생에게 《정 평양에 가겠으면 김구와 함께 갔다가 회의를 끝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북조선을 반대하고 리승만계열에 가담한다는 성명을 내라.》고 비밀요청까지 하였다. 선생의 북행결심은 이렇듯 많은 도전과 고심끝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4월 22일 아침 먼동이 틀무렵 김규식선생과 그 일행은 평양에 도착하였다. 기차에서 내려 마중나와 있던 일꾼들이 안내하는 승용차에 탄 일행은 모란봉기슭의 평포집안 언덕에 자리잡은 아담한 2층집안에 도착하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남조선측 대표들을 위하여 마련된 려관이었다. 여기서 선생은 앞서 도착한 홍명희, 김구선생을 만나 소감을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은 하루빨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보고싶은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하지만 김규식선생은 몸이 편하지 않게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련석회의의 3일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첫시간에 선생의 속소를 몸소 찾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으오셨

해주시었다. 《장군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였던 저였습니까. 그리고 장군님께서 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었을 때 초기에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한것이 저송스럽습니다. 용감 왔어야 할 길을 왔는데 그렇게 까지 치하해주시니 어떻게 말씀했으면 좋겠지 모르겠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너그럽고 고매한 품모에 목이 메어 이렇게 말씀올렸다.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신 김이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남북련석회의를 하는 목적도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나라를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책동과 남조선 《단독정권》을 반대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우리는 김구선생이나 김규식선생과 같은분들과 손을 잡고 후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온 민족의 념민을 풀자 이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긴 위대한 수령님

의 말씀은 듣는 순간 김규식선생은 자기의 지난날이 죄송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멧 멧치 못한 그의 지난날에 대해서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웃음을 담은 신재 오랜 시간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김규식선생을 바라보시며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몸이 불편하여 련석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다르게 생각 말고 몸조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아직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회담도 있었지만 몸이 완치된 다음에 일을 보도록 하자고 뜨겁게 고무격려 해주시었다. 이날 김규식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애국주의사상과 높으신 식견, 고결한 덕망에 탄복하면서 그이께서 련석회의에서 하신 보고서의 구절구절을 몇번이고 다시금 되뇌었다. 그럴수록 그의 머리속에는 조선을 바로잡으실 영웅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다. 본시기자

통일을 불러

진정한 애국의 길은 어디에 (2)



김규식선생

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 국토광란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자는 이 마당에서 구태여 과거를 논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거를 가지고 시야 비야 시비를 가리는 것은 큰일을 그르치게 하는 용졸한 태도이다. 과거분론의 원칙에서 지난날의 일을 다 백지화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련관됨을 통하여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전달받은 김규식선생은 북행결심을 더욱 굳혔다. 선생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것을 간파한 외세는 선생에게 《정 평양에 가겠으면 김구와 함께 갔다가 회의를 끝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북조선을 반대하고 리승만계열에 가담한다는 성명을 내라.》고 비밀요청까지 하였다. 선생의 북행결심은 이렇듯 많은 도전과 고심끝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은 하루빨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보고싶은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하지만 김규식선생은 몸이 편하지 않게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련석회의의 3일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첫시간에 선생의 속소를 몸소 찾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으오셨

해주시었다. 《장군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였던 저였습니까. 그리고 장군님께서 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었을 때 초기에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한것이 저송스럽습니다. 용감 왔어야 할 길을 왔는데 그렇게 까지 치하해주시니 어떻게 말씀했으면 좋겠지 모르겠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너그럽고 고매한 품모에 목이 메어 이렇게 말씀올렸다.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신 김이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남북련석회의를 하는 목적도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나라를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책동과 남조선 《단독정권》을 반대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대책을 세우는것이라고, 우리는 김구선생이나 김규식선생과 같은분들과 손을 잡고 후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온 민족의 념민을 풀자 이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긴 위대한 수령님

의 말씀은 듣는 순간 김규식선생은 자기의 지난날이 죄송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멧 멧치 못한 그의 지난날에 대해서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웃음을 담은 신재 오랜 시간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김규식선생을 바라보시며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몸이 불편하여 련석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다르게 생각 말고 몸조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아직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회담도 있었지만 몸이 완치된 다음에 일을 보도록 하자고 뜨겁게 고무격려 해주시었다. 이날 김규식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애국주의사상과 높으신 식견, 고결한 덕망에 탄복하면서 그이께서 련석회의에서 하신 보고서의 구절구절을 몇번이고 다시금 되뇌었다. 그럴수록 그의 머리속에는 조선을 바로잡으실 영웅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다. 본시기자

그날의 함성이 오늘도 새겨주는 진리

6월 10일은 남조선에서 6월민주항쟁이 일어났던 34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6월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식민주의정책과 군사독재체제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반미반과포투쟁을 벌였다. 당시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노린 《4.13호헌조치》는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넘긴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끓여오르게 하였다. 6월 10일 남조선전역에서는 청년학생들을 선두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상공인 등 각계층 중군이 항쟁에 떨쳐나섰다. 거리마다에서는 시위군중이 물결을 이루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개헌》, 《민주헌법쟁취》, 《군사독재 지지하는 미국 물러가라》 등의 구호들이 울려 퍼졌다. 이 항쟁에는 연 500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에 직접적인 군부파쇼담당은 이른바 《민주화헌신》을 발표하고 항쟁참가자들이 요구하는 직선제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6월민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과포투쟁사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넋을 새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6월민주항쟁을 이끈 남조선인민들은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의 만행에 분노하여 대중적인 반미초분시위를 벌이고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로

벌리었으며 수년전에는 너도나도 손에 초콜을 들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박근혜독재 《정권》을 거꾸러뜨리었다. 하지만 항쟁용사들을 비롯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 새 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아직도 남조선에는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누르는 《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들이 남아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을 비롯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고있다. 특히 이전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들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민심의 지향에 도전하여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지금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적폐철폐요구에 완강히 도전해나서면서 어떻게 하나 권력을 다시 나누어쳐서 퍼비린 독재시대를 되살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검찰개혁을 음모양모로 방해하고 한사코 반대하고있는것도, 이전 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책으로 파산에 처한 민생을 악용하여 《정권교체》를 부르짖는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조아리는것도 권력을 쥐어 파쇼와 동족대결의 시대를 되살리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자들이 있기에 광주를 피바다에 잠기고 6월민주항쟁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전두환살인악마

가 오늘도 머리를 뺏뺏이 쳐들고 날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정치적혼란이 날로 커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속이수선언》이라고 락인한 《6.29특별선언》을 발표한 군부독재의 후예들이 《신독재》를 운운하며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천연레쳐 너그러고있는것은 남조선정치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와 반인민성의 변할수 없는 체질적속성이다. 6월민주항쟁의 뼈저린 교훈은 친미독재자들의 회유와 기만술책에 넘어가게 되면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 값비싼 피를 뿌려도 투쟁의 열매를 쟁취할수 없게 된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어둠을 밝힌것은 초분투쟁 이후의 가슴아픈 현실도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되살아나게 되고 인민들의 리익이 엄중히 침해당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라는 6월의 함성이 오늘 남조선인민들에게 절절히 깨우치고있는것은 무엇이었는가. 파쇼독재와 부패의 온상이고 사회발전의 장애물인 보수세력들의 기만술책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정의와 진보가 승리할 때까지 투쟁의 기발은 계속 휘날려야 한다는것이 6월민주항쟁의 메아리가 오늘에 새겨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정 역

산업재해, 그 답은?

산업재해는 《황금만능》, 인간천시가 보편화된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다. 남조선에서도 산업재해에 의한 사고와 사망이 우습하게 나타나고있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청년들이 산업재해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 올해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300kg의 집합철판날개에 깔려 숨진 23살의 리선호, 2018년 12월 10일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콘베어벨트에 끼여 숨진 24살의 김용준,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도 2호선 19일의길 아무개정년, 이렇게 아까운 청춘들이 생을 잃었다. 2019년에는 51명, 2020년에는 42명의 10대, 20대청년들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리선호가 숨진 4월 22일이후로 최소 30여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남조선의 산업재해사망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10만명당 5명정도, 하루 2.4~2.6명이 산업재해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직업별로 인한 산업재해사망자까지 합치면 하루

7명이 비명에 가는것으로 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차에 놓은 《누레기법》이 되었다고 한다. 5명미만을 고용하고있는 경영자는 법적용에서 제외되고 5명~49명을 고용한 경영자에게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리선호의 아버지 리재훈은 말한다. 《젊은이들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보다는 노동환경이 나아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경고장으로 삼아 비뚤어진 세상을 조금 더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다. 일단 사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최하 징역형이 나와야 한다》. 김용준의 어머니 김미숙도 절규한다. 《나도 비정규직으로 8년

동안 인쇄회로기관공장에서 일했다. 처음 공장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한번 썼는데 회사는 1년마다 이름을 바꾸었다. 매년 한번씩 채용하는것처럼 편법을 쓰는것이다. (비정규직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신고하면 되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하니 못한다. 다른 부서에서 대량해고된적이 있었는데 해고 1순위는 바쁜 말하는 사람이었다. 정규직과 일은 똑같이 하는데 비정규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인 그들은 한결같이 토로한다. 《정치는 못 믿지만 국민에게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김용준재단》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등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야 하는 것 같다.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개정하는것이 그 출발점이다》라고 다짐하

었다. 산업재해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엮은 도서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우리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이야기는 흔히 하는 반면 노동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 오늘도 누군가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는 어깨를 못 쓰게 되고 누군가는 앞에 걸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것이 현실임에도 노동의 위험과 고통은 잘 이야기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가 만연된 남조선사회의 현실에 대한 아픈 호소이다.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무엇인가? 로동존중, 인간존중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보다 차별을, 인간의 목숨보다 리움을 우선시하는 남조선사회에서 로동존중, 인간존중은 한갓 무지개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김 해 성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결정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투쟁 진행

남조선인민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일 진보연대, 민주로총, 《한국로총》,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하여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와 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날 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주변을 비롯한 서울과 통영, 김해, 대구, 인천, 청주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일본대사관에 항의편

지발송, 선전전 등의 공동행동으로 련대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에 보내는 편지형식의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여장의 58%가 태평양에 있다.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에 후쿠시마오염수의 태평양방류계획을 철회할것과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각계 단체의 발원자들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무단방

류는 해양에 대한 일종의 페로워터이며 용납될수 없는 독극이다. 세계인민들의 목숨을 짓밟는것이고 아이들의 운명을 짓밟는 행위이다. 오염수방류는 제2의 원자폭탄을 전인류를 향해서 터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일본정부에 보내는 6대요구안이 발표되고 일본대사관일대에서는 오염수방류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성》호르레기불기를 비롯한 상징의식도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안 권 일

남조선군대내에 만연된 성범죄

최근 남조선에서 어느 한 공군부대에 복무하고있던 녀성군인이 자살한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성폭력사건을 목인하고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간 군부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공군부대내 성폭력사건과 그에 대한 조직적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피해자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하루만에 무려 28만여명의 지지를 받은것은 각계층의 분노가 어느 정도 고조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알려지지않은 성범죄는 남조선군대내에 고질적으로 만연된 범죄의 하나로 되고 있다.

어느해인가 남조선의 《근인권센터》가 100명의 녀성사병들과 장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5명중 1명이 부대내에서 성적학대를 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2017년 5월 남조선해군의 한 녀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 부터 치욕을 당한 후 병실에서 목숨을 끊은것을 비롯하여 수직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한 길을 택하는 녀성군인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남조선육군에서 처벌받은 53명 군인들을 조사해본 결과 성폭력행위로 정계를 받은 군인이 22명으로서 41.5%, 즉 10명중 4명이 성폭행과 성추행 등

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밝혀졌다. 남조선군대내에서 장교들은 하급녀성군인들을 성노리개로 삼는것을 보통으로 여기고있으며 꼭뒤에 부은물이 발꿈치까지 흐르는것처럼 아랫것들도 그 본을 따 남조선군대는 말그대로 성범죄의 란무장으로 되어버린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이 남조선군대의 이러한 성범죄실태와 관련하여 《군복입은 유락》을 련장케 한다고 조소하였겠는가. 이번 녀성군인에 대한 성추행사건은 남조선군대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행위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지만 상급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족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해자를 싸고돌면서 다른 부대로 쫓아버리다니니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살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남조선군부를 강하게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군부가 성범죄가해자와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근절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북선개척》의 미명하에

조선에 대한 식민주의적기간 일제는 정병, 징용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어가 죽음을 고역장에서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으며 나중에는 집단학살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북선개척》이라는 미명하에 북부조선일대에 감행한 강제징용과 학살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북선개척》의 목적은 조선의 북부일대의 풍부한 지하자원, 수력자원, 산림자원을 대량적으로 약탈하여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를 생산공급하며 교동망을 확장함으로써 이 일대의 군사전략적지위를 높이지는데 있었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조선의 부원을 중진》시키고 《민중의 《왕도락》을 건설》한다는 황당한 설교를 늘어놓았다. 우선 일제는 북부조선일대의 항만들을 개축하고 두만

다. 부전고원의 인클라시운전때에는 《산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낫과 삽은 쇠바늘을 매어놓고 50명정도의 조선사람을 태워중도에 떨어뜨렸다. 사도는 떨어지고 거기에 뒀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뼈도 찾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의 신흥제법 노구찌라는자는 공사전에 《사망진단서》를 3만장이나 인쇄해가지고있으면서 《이것이면 공사는 문제없다.》고까지 뇌거었다고 한다. 일제는 어느 한 비행장건설에도 수많은 청장년들을 징용으로 끌어들여 4년간이나 혹사시키었으며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조선인징용로동자 800여명을 한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학살하였다. 과거 일제가 《북선개척》의 간판하에 감행한 야수적인 강제연행범죄와 학살민행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생명을 앗아간 것일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이후 《모집》이나 《관안선》방식으로 진행된 조선국내징용은 태평양전쟁발발후에는 완전한 인간사냥으로 이전되었다. 일제는 징용으로 끌어들인 조선사람들을 마초처럼 부리고 학살하는 민행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야만행위는 특히 발전소와 비행장건설과정에 서 뚜렷이 나타났다. 당시 어느 한 발전소건설을 위한 언저공사에 징용으로 끌려와 고역을 당하였던 로동자는 《경도공사장에서 경도가 무너져 약 350명이 단번에 죽는 사고가 있었다. ... 3호경도 수직갱공사에서 승강기가 떨어져 200명정도의 로동자들이 놀러워죽은 사고도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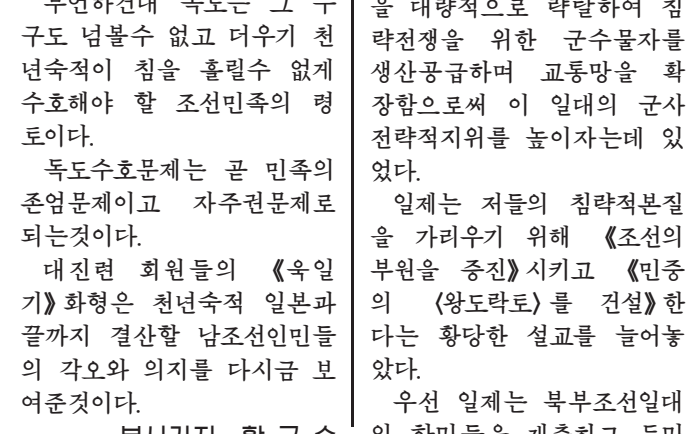
다. 부전고원의 인클라시운전때에는 《산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낫과 삽은 쇠바늘을 매어놓고 50명정도의 조선사람을 태워중도에 떨어뜨렸다. 사도는 떨어지고 거기에 뒀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뼈도 찾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의 신흥제법 노구찌라는자는 공사전에 《사망진단서》를 3만장이나 인쇄해가지고있으면서 《이것이면 공사는 문제없다.》고까지 뇌거었다고 한다. 일제는 어느 한 비행장건설에도 수많은 청장년들을 징용으로 끌어들여 4년간이나 혹사시키었으며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조선인징용로동자 800여명을 한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학살하였다. 과거 일제가 《북선개척》의 간판하에 감행한 야수적인 강제연행범죄와 학살민행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 생명을 앗아간 것일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겨레의 울분을 담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교울림과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것은 지난 6월 1일 남조선의 대학생진보연합(대진련) 회원들이 일본대사관앞에서 불태운 《옥일기》에 쓴 글이다. 그들은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건가.》, 《일본이 이번 울림에 쓰는 전범기를 규탄하고 일본정부도 규탄한다.》고 하면서 이번 화형식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다음날 대진련 회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앞에서 또다시 《옥일기》를 불태우면서 《우리 대학생들은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악행을 저지하기 위해 화형식을 진행한다.》, 《오늘 화형식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할것》이라고 다짐해나섰다. 대진련 회원들의 이러한 투쟁은 일본의 령도강탈야망

에 대한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단죄이며 남조선전역에서 고조되고있는 반일기운의 표출이다. 격분하게 하는것은 남조선경찰의 망동이다. 남조선경찰이 일본대사관앞에서 《옥일기》화형식을 벌린 대진련 회원 3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하여 서울경찰서로 련행하였다. 그러한 망동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대진련 회원들의 삭발식투쟁을 《돈을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과의 반도)》라고 모욕하며 가로막은적도 있었다. 대진련 회원들의 투쟁은 민족의 강토를 수호하고 존엄을 지키며 천년속적의 퍼비린 죄악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도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다양한 반일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찰이 그 무슨 《법》위반을 운운하는데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사수하는 투쟁을 탄압하는 그런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인가고 하면서 경찰의 그러한 망동에는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항의해나서고있다. 웅당한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천년속적의 로골화되는 독도강탈야망, 과거사책임회피, 재침책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유감》이라는 말이나 흘리면서 《미제지향적인 관계개선》을 구걸해온 결과인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반일기운과 령토수호, 존엄사수의지를 바로 새겨들려주면 그 무슨 《미제지향》과 같은 황당한 망상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부연하건대 독도는 그 누구도 넘볼수 없고 더우기 천년속적의 침을 흘릴수 없게 수호해야 할 조선민족의 령토이다. 독도수호문제는 곧 민족의 존엄문제이고 자주권문제로 되는것이다. 대진련 회원들의 《옥일기》화형은 천년속적 일본과 끝까지 결산할 남조선인민들의 각오와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것이다. 본사기자 황 금 숙



은을 내는 재자원화체계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아서—

공화국에서 제자원화를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들어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지역과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제자원화사업에 힘을 넣어서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이 공장을 찾았을 때 파수지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구내로 들어서고있었다.

우리의 만년 공장인 김득수기사는 제자원화사업에서 기본은 원료원천을 확보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자원화가 실지 은을 내는 거 아니던 오븐열도식으로 끝나

는가는 폐기폐물, 부산물의 회수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파수지수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제자원화원천을 부단히 찾아내고있습니다.》

알고보니 공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파수지원천을 크게 4가지 경로를 통해 확보하고있었다.

파수지교환매를 통하여 주민들과 물물교환을 진행하는것, 공장, 기업소들과의 연계밑에 거

에서 나오는 파수지들을 실어오는것, 건설장들에 나가 낚은 관류와 같은 파수지들을 회수하는것, 전국각지를 다니며 파수지들을 수집하는것이였다. 공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아들이는 파수지량이 매달 수십에 달한다고 하니 막대한 재생원료가 아닐수 없었다.

이렇게 파수지수집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까지에는 목걸도 있었고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공장은 재자원화사업의 공장의 진도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고 한시도 중도반단함이 없이 내미는 한편 옳은 방법론에 기초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파수지교환매의 실례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주민들의 수매의욕을 높이고 그들이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공장일꾼들은 주민들을 만나 의견도 들어보고 수지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

한데 기초하여 파수지의 가격을 주민들에게 리익이 되고 공장에 도 리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파수지교환매가 생겨난 첫시기부터 현재까지도 《마를줄 모르는 비료참고》로 불리우고있는 것은 바로 공장에서 파수지의 수매가격을 주먹구구식으로 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와 타산밑에 합리적으로 정한데 기인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의 일꾼들은 파수지수집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고있다.

재자원화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된 결과 공장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원료걱정을 모르고 수백가지나 되는 수지제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득수기사는 말한다.

《제자원화를 통한 생산활성화, 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먹고 달려붙으면 예비는 그 어디에 있다. 재자원화를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전략으로 틀어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

본사기자 김진혁

평범한 생활의 단면에서 소중한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신의주시의 어느 한 공장에 들렀을 때였다. 한 직장의 휴게실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동문 아직 정신이 덜 들었소.》

《손을 보호하는것이 그대 동무 개인의 일인줄 아는가?》

문제거리의 주인공은 신입공이었는데 그는 뿌루뚫한 기색이 었었다. 그의 손에서는 로동장갑이 애꿎게 비틀리고있었다.

《한시간쯤 로동장갑을 안 낀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작업에 열중하던 나머지 로동장갑을 벗어놓고 일한 신입공은 불부는 목소리로 증얼거렸다.

이때였다. 뒤쪽에 앉았던 한 아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못은 나한테 있네. 내가 로동안전교양을 잘하지 못했소. 그것이 그저 로동장갑이 아니라라는걸 가슴에 쏘아박아주어야 하는건데...》

그러면서 아미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해방 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순천시의 어느 한 화학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공장에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많고 위험개소도 적지 않은데 로동보호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사소한 로동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의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철망을 쳐야 할때는 철망을 치고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들에 선풍기를 놓으며 전로공들과 용접공들에게는 보호안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그 따뜻한 사람이 있어 이 땅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로동보호사업이 우선시되는 참된 인간사랑의 력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러니 언제인가 어느 한 판공을 찾았을 때 로동보호감독군이 하던 말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는 로동보호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이 새로 배치되어오면 그들이 제일먼저 10여일간의 로동안전교양을 충분히 받도록 하라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경에서 일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로동자들에게 안전도와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가 공급되고 있다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얼마나 큰 해력을 기울이고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게 한 이야기였다.

생산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시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며 중요한 국가적책으로 되고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이렇듯 고마운 제도가 있어 근로자들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소망에 맞는 일에서 즐겁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고 있는것 아니라.

세상을 둘러보면 사회적으로 제일 불행한것이 로동자들의 삶이다. 로동자들이 한낱 《말하는 기계》처럼 혹사당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의 생활처지는 날로 어려워지고 각종 로동재해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생명을 앗아가고있는것이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각종 산업재해가 날로 급증하고있는 남조선에서 이런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하루평균 7명의 사망자를 내는 무서운 재앙이 바로 산업재해라고 하면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4만 2 632명, 매해 2 400여명의 로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있는 현실을 자료적으로 분석하였다.

남조선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로동자가 2 06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대학생이 300kg짜리 철관에 깔려죽는가 하면 로동자들이 기계에 몸이 끼이거나 기중기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그칠새 없어 사회적비난이 고조되고있다.

늘어나는 산업재해를 두고 언론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생명안전보다 돈과 기업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남조선사회가 안고있는 불치의 병으로, 근로자들의 필약한 생존환경에는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이 빚어낸 인재라고 평하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로동보호법이 있고 그 고마운 시책속에서 참다운 로동생활이 꽃피어나는 사회, 바로 여기에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비껴있음을 판이한 두 현실은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로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부녀의 교육현장을 가다

《왕차》 (2)

에 들어있는 영양소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출당콩은 우리 나라 어디서나 잘되며 농콜을 올리기에때문에 땅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출당콩농사법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당콩을 한해에 2만 5천생산한편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는 당콩 60알씩 먹이고 하루는 달알 한알씩 먹이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딸수지 않고 먹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산과 공급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었다고 한다.

그후에도 아이들을 위하시는 주석님의 사색은 그칠줄 몰랐다.

어느때인가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초원에 흐르는 냇소때를 바라보시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를 구상하시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조국에 돌아오시어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축산조건이 제한되어있는 조국의 실정에 맞게 공우유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첫 제품인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시어 송수화기를 드신체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구절을 흥에 겨워 부르시었다는 주석님.

안내일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을 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세 세대들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어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공급시간으로 정해주시고 수도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공우유를 동시에 먹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랑의 《왕차》로 정답게 불리워지고있는 은쟁이런 공우유전문수송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공급체계에 따라 수도의 거리들을 달리는 이때로 올 풍경이 펼쳐졌으며 시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공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우유를 정상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하루도 중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에 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시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공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신다는것도 그의 이야기이다.

경에하는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품공장을 거듭 현지지도하시였을뿐아니라 공우유공급에 필요한 새 운반차들을 보내주시고 품소 운반차에 새길 글자와 그림 도안까지 지도해주시며 다신한 정의를 기울여주시었다고 한다.

공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국각지에 수많은 일떠서있으며 한시도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한다.

더욱이 놀라운것은 인민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 《왕차》가 매일매일,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간다는것이다.

안내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투수차》에 대한 나의 의문은 풀릴수 있었다. 그러나 나와 동료들이 받은 감동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우유 한고부에도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신분들의 사랑과 로고가 그렇게 깃들여있으니 어제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나라가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공화국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장수식품으로 이른바 공으로 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적요구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공급해주는 나라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풍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찾아 변함없이 달려오고달리는 《왕차》,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공화국어린이들의 행복의 대명사라고.

재중동포 김영란

《왕차》

《왕차》

특히 탄수화물함유량이 당공 50알에는 12.2g 들어있지만 달알 한알에는 0.5g밖에 없는것이다. 당공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비타민을 비롯하여 미량원소도 많이 들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당공 50알과 달알 한알의 영양소분 석결과를 대비하시고 당공 50알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알 한알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축복 받은 삶을 살아온 인민배우 손대원(81살)선생을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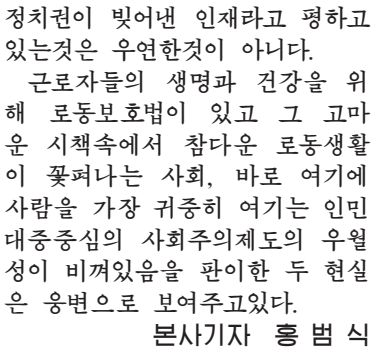
축복받은 삶 - 인민배우 손대원

성공한 영화예술인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한 장면



성실한 교육자



관록있는 독창가수



《인민배우 손대원독창회》 (2008년)

성악배우인 손대원선생은 인민들의 추억속에 남아있는 좋은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축복받은 나의 삶》, 《변명하여라 로동당시대》, 《안락강 2천리》, 《만경대갈림길》, 《고향의 밤》, 《그대 밤에 내 몰라라》, 《당을 노래하라》, 《연길목판》, 《열록소야 어서 가자》...

그 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손대원선생은 《축복받은 나의 삶》을 제일 사랑한다고 한다.

《내가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을 그처럼 사랑하는것은 이 노래가 어찌보면 나의 행복한 삶을 두고 노래한것 같이 느껴지기때문입니다.》

한생의 추억을 더듬어보는 손대원선생의 눈에는 이름할수 없는 빛이 어려있었다.

해방전 이역땅에서 고향도, 친부모도 모른채 고아로 길가의 막둥이처럼 내버려졌던 그였다. 마음씨고운 양부모를 만나 그들의 손에 이끌려 4살때부터 평양에서 살게

된 손대원선생이였다. 공화국의 품에서 전후에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당시 평양공작기계공장 주물공으로 일하였다. 어려서부터 노래부르기를 좋아했고 명창으로 불리웠던지라 작업의 일환이면 제청송 노래를 부르곤 했다.

나라에서는 일 잘하고 노래 또한 잘 부르는 그를 아껴주고 내세워주었고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라고 평양음악대학(당시)에 보내주었다. 그 사랑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교향악단과 평양예술단(당시)을 비롯하여 여러 예술단체에서 독창가수로 성장하였다.

일마후 그는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배우로 뽑히게 되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창작과정은 손대원선생의 인생에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오늘도 손대원선생은 영화 창작의 나날에 있었던 감

동깊은 사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

《1979년 정초 어느 날 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 나오는 주요인물의 배역안을 로해하시다가 몸소 저에 대해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저에게 조선로동당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후 영화가 완성된 다음저를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이 동무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있다고, 이 동무는 음악대학졸업생이며 아주 수준있는 동무라고 소개해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렇게도 노래를 부르고싶어하는 저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이제부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껏 노래를 부르라고 고무해주시고 영화창작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무대에 내세워주시어 노래로 한생을 빛내일수 있도록 하신것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그를 외국무악도 보내주시어 더 많은 성악지식을 배우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손대원선생은 소원대로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고 국내외에서 예술적재능을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공훈배우, 인민배우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세 번씩이나 독창회를 열도

록 하는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주제101(2012)년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음악회에서 손대원선생은 독창으로 노래 《안락강 2천리》를 부르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길가의 막물과도 같은 저의 운명이 절세위인의 품에 안겨 만사일이 부러워하는 관록있는 독창가수,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노래 《축복받은 나의 삶》을 부르고 또 부르고있습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한 장면

정담물영화인 《이름없는 영웅들》이 창작된지 40여년 세월이 흘렀다. 영화에서 손대원선생은 부장인물들중에서 주역인 클라우스역을 손색없이 수행한것으로 하여 여든살이 넘은 오늘날도 사람들속에서 손대원이란 이름보다 《클라우스》로 불리우고 있다.

《그때 나는 평양예술단의 성악배우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화연출가 류호선선생이 찾아와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대본을 주면서 클라우스역을 해보고싶은 생각이 없는가고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밤새워 대본을 읽

치 않은 적수인 클라우스의 내면세계를 형성해야 한다. ...》

《이렇게 생각한 나는 류호선연출가와 형성토론을 하였습니. 영화에서 나오는 클라우스는 제때에는 지성도 있고 리듬도 있는 강한 적수였습니. 그러나 《아틀라스의 사자》라고 위세를 떨구던 클라우스도 중당에는 패배를 인정하고 영화의 주인공들앞에서 회기를 들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있는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정신,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같은 고귀한 사상감정을 클라우스는 리해할수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원수의 추악성만을 강조할것이 아니라 클라우스의 대결과정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역형상의 중점을 정확히 잡고 낫과 밭이 따로없던 이 연기형상에 몰두한 손대원선생의 연기는 매우 성공적이였다.

《영화가 방영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지닌 열렬한 조국애를 뜨겁게 느끼며 가슴을 울렸고 또 교활한 클라우스에 대한 증오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때부터 손대원선생은 《클라우스》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그가 영화배우생활을 끝마치고 성악배우로 무대에 섰을 때에도 사람들은 《손대원》이 노래를 참 잘한다.》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클라우스》가 노래를 잘한다.》라

고 말하곤 했다.

그만큼 손대원선생의 역형상은 훌륭했고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었던것이다.

손대원선생의 클라우스역형상과정에 대해서는 얼마전 조선중앙TV로 방영된 특집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에서도 상세히 설명되었다. 손대원선생은 예술

손대원선생은 오래동안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성악학부 교원으로, 강좌장으로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선생이 키워낸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꼽아가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감명깊게 불러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인민배우, 국제공물수상자인 홍경훈을 비롯하여 가족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남주인공역을 맡아 훌륭한 형상한 공훈배우 문명삼, 함선희도 그의 제자들이다.

이밖에도 공훈배우 김익, 공훈배우 리상수, 공훈배우 김성철, 공훈배우 김일환, 리정준 등 이름있는 성악배우들을 수많은 이들이 키워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한 교원은 손대원선생과 함께 보낸 나날들을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손대원선생님은 남달리 열정이 많고 탐구심이 높았습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었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비롯한 여러 영화들에 출연하여 재능있는 영화배우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고 하루 2시간이상의 발성훈련과 호흡훈련, 발성까지 학부 교원으로, 강좌장으로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선생이 키워낸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꼽아가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를 감명깊게 불러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인민배우, 국제공물수상자인 홍경훈을 비롯하여 가족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남주인공역을 맡아 훌륭한 형상한 공훈배우 문명삼, 함선희도 그의 제자들이다.

이밖에도 공훈배우 김익, 공훈배우 리상수, 공훈배우 김성철, 공훈배우 김일환, 리정준 등 이름있는 성악배우들을 수많은 이들이 키워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한 교원은 손대원선생과 함께 보낸 나날들을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손대원선생님은 남달리 열정이 많고 탐구심이 높았습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었

주체미술의 밝은 전도를 보여준 전람회

◆ 전국신인 미술전람회 진행 ◆



얼마전 유류전시관에서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신인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전람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까지의 창작년한을 가진 신인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향화, 유화, 판화, 조각, 아크릴화 등 2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는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훌륭한 명작을 내놓으려는 새 세대 창작자들의 창작적열정과 재능을 잘 보여 주었다.

유화 《백두산》, 조선화 《사명부의 불빛》, 《혁명의 성지로》, 조선보석화 《소백수련의 아침》, 아크릴화



《백두의 행군길》 등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들어주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가려는 공화국인들의 지향이 화폭마다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조선화 《초과완수》, 유화 《출신을 앞두고》, 조각 《우리의 기술로》, 판화 《황철의 숨결》을 비롯한 작품들도 비록 단 소수이지만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진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펼쳐나신 각지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다.

만수대창작사의 신인미술가인 조경석이 창작한 조각 《다음 교대를 위하여》는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다음 교대를 위한 작업준비를 하는 용해공의 모습을 통하여 언제나 집단과 동지

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공화국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실감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람회장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거창한 건설대진에서 위훈을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의 전투적기상과 시련속에서도 더 좋아질 밝은 래일을 그려보며 심신과 락안에 넘쳐 생활하는 인민들의 모습,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민속 등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장에는 들끓는 협동별의 전야를 후덥게 안아보게 하는 농촌주체의 작품들과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 애국의 마음을 담은 작품들도 전시되어 참관

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시도가 엿보이는 특색있는 공예작품들도 이번 전람회장을 이채롭게 하였다.

인두화는 나무판이나 짐승의 털가죽에 열을 가하여 형성하는 미술작품이다. 만수대창작사 미술가 김형진이 창작한 인두화 《나비와 수달》은 나비와 수달의 가벼운 기질을 나무칼팍이나 대패로 부각시켜 형성하고 그 위에 인두로 열을 가한것으로서 보다 립체감을 살리었다.

이번 전람회는 전망성있는 젊은 미술가들이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열의를 높여주고 주체미술의 밝은 전도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가 8일과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2017년-2020년 사업총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적십자회가 2020년까지의 전략계획에 반영된 전망목표에 따라 보다 안전한 주민지역건설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해위험이 가장 큰 지역들을 종합발전계획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방정권기관들과의 협력에 단계별목표를 실현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적십자회의 재해대응사업과 법률적기조, 홍보기능, 지속적발전능력강화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과 적십자국제위원회, 여러 나라 적십자 및 적반월회와의 교류와 협력도 가일층 강화발전되었다고 말하였다.

적십자회사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적십자회를 공화국 정부의 믿음직한 보조조직체로 보다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계속 하였다.

사람들의 불행방지를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기본사명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십자회가 도달해야 할 전략적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 적십자회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에 맞게 자기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민지역에서의 종합발전계획들을 기구화화대응 및 생태환경보호사업과 밀접히 련관시켜나가는 한다.

적십자회의 기구적인 발전과 공보 및 원천동원을 위한 능력강화사업을 항구적으로 들어취고나가는 한다.

청소년적십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회원대렬을 늘려 적십자회의 미래를 담보하며 활동의 지속성과 질을 계속 높여야 한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연맹, 적십자국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 여러 나라 적십자 및 적반월회단체와의 련계를 강화하여 전략적목표달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며 모두가 적십자활동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로 철저히 일관시킴으로써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도모하고 그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략과 부분별발동방향, 수정보충원 규약이 채택되었으며 새 지도기관 성원들이 선거되었다.

본사기자

《밤새 웃어라 활짝 피어라》

— 평양출판사에서 —



평양출판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과 공화국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화첩 《밤새 웃어라 활짝 피어라》를 출판하였다.

화첩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만경대혁명학원, 평양유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대성산 종합병원을 찾으시어 친부모도 줄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나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더 높여 울려 퍼지게 하시려고 충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교소년궁전 등을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고 평양가방공장, 민물레학습장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겨가시는 사진문헌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쁨시진을 찍어주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사진문헌들도 모셔져있다.

화첩은 아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한점 그늘없이 밤새 웃으며 강성조성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는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밝고 행복넘친 모습을 사진, 위인화 등과 배합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여름철과 머리아픔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는 흔히 머리아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 여름을 타는 형의 머리아픔
부더워기간에 식욕이 떨어지고 잠부족을 느끼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아파고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몸이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약을 먹는 동시에 실내온도를 낮추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 정량음료에 의한 머리아픔
더운 날씨에 찬 맥주를 마시거나 에스키모, 찬 수박을 먹을 때 갑작스러운 머리아픔이 오는 경우가 있다. 심하지 않을 때는 손으로 국부 안마를 하여 아픔을 덜수 있고 아픔이 심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픔없이약을 먹어야 한다.

◆ 뇌위축성머리아픔
여름철에는 때로 인체의 체온보다 높아지면 열을 날려보내는 지나친 땀분비로 하여 쉽게 탈수에 빠진다. 또한 변질된 음식물에 의한 설사로 탈수가 올수 있다.

탈수때 뇌척수액이 줄어들어 두개골과 뇌조직사이의 공간이 커져 머리아픔이 나타난다. 이런 때는 침대에 누워 안정하는데 배개를 베지 말고 머리부위를 낮추어야 한다.

본사기자

장진정장어

함경남도 장진군 늑수리는 정장어가 살기에 유리한 지역이다. 장진정장어는 장진호수에서부터 늑수리에서부터 웃기슭에 이르기까지 서식하고 있다.

찬물성민물고기인 정장어는 몸길이가 보통 70~80cm, 큰것은 1m를 훨씬 넘는다. 몸질량은 20~30kg이며 몸뚱이는 옆으로 약간 넓적하면서 매우 길고 몸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 몸색깔은 등쪽이 검푸르고 배쪽은 재빛색이며 은물에는 작은 검은반점들이 널려있다. 알출이는 4~6월에 한다. 물가에 사는 개구리, 뱀, 들쥐, 지어 날아다니는 물새들까지 잡아먹는 성질이 사납고 먹성이 강하며 힘이 센 맹어이다.

장진정장어는 조선반도의 민물고기 가운데서 제일 큰 특산종이다. 이 정장어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었던지 옛날 이 지방의 정가성을 가진 한 낚시꾼이 정장어가 물린 낚시줄에 끌리워 고 배쪽은 재빛색이며 은물에는 작은 검은반점들이 널려있다. 알출이는 4~6월에 한다. 물가에 사는 개구리, 뱀, 들쥐, 지어 날아다니는 물새들까지 잡아먹는 성질이 사납고 먹성이 강하며 힘이 센 맹어이다.

장진정장어는 조선반도의 민물고기 가운데서 제일 큰 특산종이다. 이 정장어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세었던지 옛날 이 지방의 정가성을 가진 한 낚시꾼이 정장어가 물린 낚시줄에 끌리워

본사기자

림제와 화전놀이 (6)

글 리빈, 그림 김윤일

《백호선생 함께 있어 좌석을 꽃피우니 이 또한 보배시요.》
이때 다른 누가 또 입을 열자 보아 겁을 내기라도 하는듯 백경이 얼른 나서서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따끈하고 꿀깃하고 향긋해서 삼미요, 배부르는줄 모르고 취하는줄 모르고 지칠줄 몰라 삼미야, 여기에 또 화목이 이루어져 보배요, 몸이 보호되어 보배, 백호선생 있어 보배니 즉 삼보라야 모두는 즐거움을 근본으로 하거늘 세계적 셋이니 화전구락이 분명하오, 화전구락!》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농군들도 모두 그 생각이 정말 신동하다며 좋아하였다. 이때 저편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시내물을 건너 백경을 찾아왔다. 그는 슬그머니 백경의 옆구리를 찌러 몇걸음 피하게서는 훌훌훌금 립제를 결는질하며 멧마더 무어라고 수군거렸다. 불그레하게 타올랐던 백경의 얼굴이 금시 해쓱해져는듯싶었다.

《그때 끝내 강군수가 불집을 일으킬 잡도리냐. 때를

못 골라서 하필이면 오늘?》 백경의 입에서 새나오는 나직한 부르짖음소리는 립제의 귀에까지 날아들었다. 했으나 그는 백경이 집에서 가져온 두견주(진달래꽃)잔을 들고 《역세그려 먹세그려 무진무진 먹세그려 두견주에 화전안주 아니 먹고 뭘 먹으리. 오늘에 배끓으면 평생의 환회리라.》 하고 이미 세상에 나도는 누군가의 시조를 정황에 맞춰 고쳐어 흥얼흥얼 읊조렸다. 눈치가 발달한 장고잡이가 그 운을에 맞춰 동당동당 운치를 들주었다. 앉아서도 영뎡이를 들켜거리던 농군들이 마침 전 거나해진 참이라 립제의 흥타령에 후닥닥 일어나 《삼미삼미삼보구락이 아니 좋으소냐!》, 《진달래꽃 활짝 웃고 연차(제비) 쌍쌍 날아하니 이내 마음 구름되어 친하를 오락가락!》, 《오늘 화전 무진 먹고 백년무병 살고지고!》 하고 범석 떠들며며 흥에 겨워 춤을 출었다. 했건만 백경은 속이 한층더 한여 안절부절을 못하고있었다. 개울 건너편 량반들의 놀이터로부터 밤공



군수의 밀지에 따른 모의일 것이라라고 제 짐작까지 덧 붙였다.

《강군수가 끝내는 백호선생에게 트집을 걸 작정인가. 가둬나 백호선생을 미워하던 그가 선생을 만났을 때 말문이 막혀 절절했다 하니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고 할수도 있다.》
백경은 걱정하던 나머지 막 안라잡기까지 하였다. 슬쩍 빠져버리려고 권할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들을 백호인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백경이 달고 향기로운 화전을 맛도 모르고 친철허 씹고 있을 때였다.

아직 하나가 시내물을 건너와서 립제에게 《선생님, 지금 저쪽에선 시깃기에 열

어서는 자기의 팔소매를 급히 잡는 백경에게 립제가 말하였다.

《네 그대가 나를 붙잡는 까닭을 모르지 않소. 걱정해 주어 고맙소. 하지만 마음 놓소. 군수가 날 어찌지 못할뿐더러 설사 그쪽으로부터 어떤 역자가 향해진대도 그 런것에 발목 잡힐 백호는 아니니가.》

《뉘 개똥이 무서워 피하겠소. 부딪치는 날에는 소리가 날수밖에 없는데 이 좋은 날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하고 백경은 근심을 놓지 못해 증얼거리면서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강사문의 앞으로 다가가 립제가 《공이 나같은 과객 선비를 다 고을사회에 불러주어서 고맙소.》 하고 레사 로이 인사를 건네자 강사문이 생각밖에도 반가이 맞아 주었다.

《백호선생이 우리 평산방에 왜 무슨 이상 선생을 내놓고야 무슨 시회를 운운하겠소. 나무람마시고 부디 좋은 글귀를 내서 시물선비들의 눈을 좀 튀워주소.》

부락은 자못 진지하였으며 꾸밈이란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군수로부리의 맹내는 이미 예견하고있던바여서 그랬더라면 차라리 마음편할것이었으나 반대로 호의를 받고보니 이것이 오히려 불안을 주

었다.

《이 사람이 이렇수가 있나? 혹시 속에 무슨 뜻이려라도? 아니, 아니야.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진게 분명해.》
림제가 이렇듯 군수의 말 뜻을 좋게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잠간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 백경은 눈이 곳곳 하여 두사람을 둘러 지켜보고있었다.

한참 시상을 고르거나 된가 쓰느라 공공 갑자라고 있던 량반유지들이 립제에게 눈길을 모두었는데 거기에는 강사문에게 《안전계선 어찌하여 저런 배구기를 우리 백로들속에 끼워넣는 거요?》 하고 나무라는 뜻이 뚜렷이 드러나있었다. 이렇듯 쌀쌀한 공기를 느끼지 못할 립제가 아니였기에 더욱 그는 글을 짓고싶지 않았다. 권세에 비위를 맞추기가 딱 질색인데다가 이들이 기생이 어떻다고 뒤에서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생각에 몹시 기분이 잡찜찜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태도가 짐짓 너그러워진 군수의 부락을 외면하면 인사 불성으로 편협한 처사가 될것기에 그것도 안된노릇이었다. 더구나 글재주가 없어 글짓기를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면 그런 망심이 또 어디 다 싶어서 쓰든달든 글을 지어야만 하였다.

호박죽

여로부터 죽은 여름철보양음식으로 알려졌다. 호박죽은 흰쌀과 채진 호박으로 썰어 만든 음식이다. 호박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과 함께 여러가지 비타민, 광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위궤양, 과산성위염, 만성간염, 각종 부종, 잠상에, 입쓰러니 기타 원인에 의한 토하기, 당뇨병, 포팔염, 복수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먹으면 좋다.

또한 어린이들의 구루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음식감으로 흰쌀 70g과 호박 50g을 준비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속담과 뜻 ◎

- ◆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 ◆ 여름불도(겨울도) 뛰다니면 섬섬하다.
- ◆ 시원치 않은 일이라도 해오던것을 그만두기는 섬섬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본사기자